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2호 [루게 제23449호] 주제100(2011)년 5월 12일 (목요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희천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보내시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발전소건설을 다그치게 하신 데에 호소와 격려를 보내고, 발전소건설을 다그치게 하신 데에 호소와 격려를 보내고, 발전소건설을 다그치게 하신 데에 호소와 격려를 보내고, 발전소건설을 다그치게 하신 데에 호소와 격려를 보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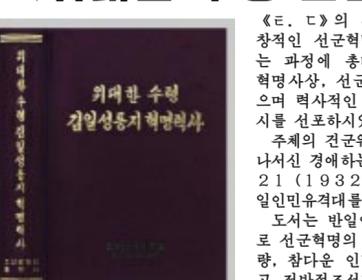
대성진도국 부원 한정길은 강성대국건설의 전초선인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아 원호물자들을 넘겨주고 화신신동도 벌립으로써 균일건설자들의 로력투쟁을 고무해주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여온 체육성 산하단위 부원 김정성은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셨으며 평양시교과서출판로동자 주은희도 발전소건설을 물질방면으로 지원하였다. 서성구역 상인동 75인민반 김학명, 교육위원회

##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을 계기로 새시대의 렬명을 맞이해가자

오세안지역준비위원회 호소문 발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오세안지역준비위원회가 4일 나라별, 지역별준비위원회, 세계 각국의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렬대성단체들에게 호소문을 보냈다. 호소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국제준비위원회 책임인민대회에서 채택된 결정서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모든 준비위원회들과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렬대성단체들은 렬사적인 날인 2012년 4월 15일 태양절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널리 조직하며 조선인민과의

산하단위 편집원 송영명, 건설설계정보센터 설계원 지성태는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하면서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건설자들에게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데서 발전소건설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지사장 최원익은 여러차례의 지원으로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셨으며 김원주사범대학 교원 김권일도 이 사업에서 모범을 보였다. 삼석구역인민위원회 부원 량영희, 삼석구역상업관리소 로동자 김영희, 라선시 신례목장 로동자 김호현, 라선백사사업소 로동자 김호철은 발전소건설을 돕는 일에 성의를 다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의 감격 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 영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희천발전소건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 잘하며 맑은 초소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 혁명적열정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력사》(증보판) 출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실에서 편찬한 도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력사》(증보판)를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과 투쟁업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백과사전적인 혁명력의 교과서입니다.》 도서에는 가장 훌륭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정치가, 백전백승의 장군의 평상이시며 인민의 재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또한 2012년 2.16경축행사들을 잘 준비하여 탁월한 령도로 조선인민의 반미투쟁과 강성대국건설,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투쟁을 승리케 하고 이끄시는 김정일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자 호소문을 밝혔다. 호소문은 2012년 4월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을 계기로 조선인민과 함께 새시대의 렬명을 맞이해가자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의 강령을 시원으로 독창적인 선군혁명의 길을 개척하는 시기에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혁명사상, 선군사상을 내놓으시었다며 렬사적인 카툰회의에서 그 창시를 선포하시었다. 주제의 건군위업을 실현하는 길에 나서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제 21(1932)년 4월 25일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었다. 도서는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으로 선군혁명의 가장 위대한 핵심력량, 참다운 인민의 무력이 마련되고 전민적조선혁명을 선군의 원칙에서 힘있게 전개해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바로 이때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있다. 렬사적인 남포무역의방침에 따라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하는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시고 대부대에 의한 국내전투조직으로 항일혁명을 계속 앙양시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과 전민항쟁으로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을 해방하신데 대하여 도서에 서술되어있다. 주제 34(1945)년 8월부터 주제 49(1960)년 12월까지의 시기를 포함하고있는 제5장부터 제8장까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주체적 혁명정책을 실현하시었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 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그 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었다. 미제의 전쟁도발로 준엄한 시련이

다쳐왔을 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군사중시원칙에 기초한 강력한 건설시지회체계를 확립하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어 렬사상 처음으로 세계 《회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시었다. 도서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가 폐허로 된 제대미우에서 불과 2-3년동안에 전후복구건설을 끝내도록 하시고 농업협동화와 개인상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우리 식으로 빛나게 완성하시였으며 천리마대고조로 혁명과 건설에서 새기록적업적을 이룩하신 자료들이 편집되어있다. 주제 50(1961)년 1월부터 주제 83(1994)년 7월까지의 시기를 포함하고있는 제9장부터 제12장까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이끄시어 사회주의의 강국을 일떠세우시고 그 존엄과 위업을 누리며 펼쳐주신 렬사가 감명깊게 서술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전당, 전군, 전민을 조직동원하시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투쟁적인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시였으며 인민군대를 일인일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고 우리 나라를 자립적강대국으로 가진 강위력한 사회주의공화국으로 건설시키시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하시였으며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었다. 또한 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한 반서진주의, 반공화국당살책등에 대처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건설시기에 위한 렬사적투쟁도 강력

적으로 이끄시어 주체혁명의 년대기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고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 렬사적전투를 개척하신 사실들도 도서에 편집되어있다. 도서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인민을 비롯하여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는 여러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정지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신 내용과 수많은 나라들에 기술사, 전문가들을 보내시어 경제문화건설을 성실성의로 도와주신 자료들이 반영되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의 감격 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 영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희천발전소건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 잘하며 맑은 초소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 혁명적열정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혁명력사》(증보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로 이끄시는 김정일동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이 땅에 사회주의강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불러 일으키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할 드높은 열정 강냉이심기 마감단계, 모내기 시작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한결같이 떨쳐나 강냉이심기를 마치며 단계를 다그치고는 동시에 작기를 바로 정하고 모내기를 시작하였다. 도안의 기관, 기업소의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인민반원들도 농사에 모든 렬량을 총동원, 총집중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농촌지회에 떨쳐나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내기는 한해농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입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모든 농장에서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도록 조직적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얼마전 도농촌경제위원회에서는 올해의 불리한 불날씨를 이겨내고 제일먼저 모내기를 시작한 용진군 국불협동농장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고 일군들에게 주체농법의 요구를 다시금 깊이 인식시켰다. 특히 모내기에서 기계화비율을 결정적으로 높여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며 강냉이심기를 빨리 끝내며 모내기일정에 최후순에 지장이 없도록 경제조직사업을 따라세웠다. 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

들이 올해농사를 잘 지어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받들기 위한 열정을 다그치고있다. 그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자기 단위의 토양특성에 맞게 씨뿌리기를 앞세우고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철저히 보장하면서 정성껏 씨를 내거었다. 모내기의 양상에는 벼모를 줄데같이 키워온 안악군 오곡, 제령군 삼지강, 신천군 백석, 청단군 평정, 강령군 내용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평도역단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있다. 이 농장들에서는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기계수확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강냉이심기를 빨리 다그치면서 모내기에 힘을 넣고있다. 연안군 신양, 배천군 평정, 강령군 인봉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협동농장들에서도 기계화비중

을 최대한 높이면서 모내기를 다그치고있다. 농촌기계화추진들과 모내기운전공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첫시작부터 모내기실적이 부쩍 오르고있다. 올해의 농업생산을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도의 기관,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인민반의 주민들도 농촌지원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황남은 보란듯이 일어섰다》에 대한 독보와 실효모임을 조직하여 모내기에 펼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올해의 농업생산을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도의 기관,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인민반의 주민들도 농촌지원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렬량



— 용진군 국불협동농장에서 — 본사기자 김중훈 찍음

## 영웅의 대부대를 키운 품

◆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가 타오른 때로부터 2년 남짓한 기간 300여명의 로력영웅이 배출되었는 소식은 지금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 있다. 영웅들속에는 주체적, 주체적순수, 주체비교생애라는 우리 나라의 특징을 안아온 혁신자들도 있고 발전소건설과 석탄생산, 대개도건설진전에서도 로력적위훈을 세운 불굴의 용사들도 있으며 최첨단과학의 앞장에서 경제강국건설에 힘있게 이바지한 과학자, 기술자들도 있다. 초소와 직업, 나이와 경력은 서로 달라도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시상을 결사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우리 시대 영웅들의 애국정신의 마음은 얼마나 순결한것인가. 그들의 백철불굴의 혁명정신과 영웅적위훈이 대고조건설의 강력한 박자로 되고있기에 도처에서 날마다 대박이, 대혁신이 일어나고있는것이다. ◆ 우리 시대의 영웅들은 위대한 백두명장의 품속에서 자라난 견결한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시대의 영웅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태어났다.》

의 나뭇를 달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과 고마움의 승고한 감정이 흐르고있다. 정령 경애하는 장군님은 초인간적인 원시지도강령군으로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전투에서 이끄시며 천만의 심장에 대고조의 봉화, 영웅적위훈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계속혁신, 계속진전의 박자로 비약의 폭풍시대를 안아오시는 영웅중의 영웅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백두의 기상과 담력, 끝없는 사랑과 믿음에 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후손으로서 조선의 속도, 불멸의 기적을 창조하며 영웅적의 승리를 수확해왔는것이다.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백두명장의 품속에서 날라 들어는 영웅의 대부대는 선군조선의 자랑이다. ◆ 영웅이 많은 나라의 강하고 흥하는 법이다. 선군시대는 영웅의 시대이다. 우리 시대에는 비범한 기질을 가진 사람만이 영웅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당과 수령에 대한 총정의 열도가 높고 불타는 애국적인신성과 강의한 의지, 완강한 실천력을 지니면 누구나 영웅으로 될수 있다. 강성대국의 대문은 천만민민의 영웅적위훈으로 열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대의 영웅들은 언제나 영웅다운 신념을 안고 대고조건설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나아가야 한다. 일군들이 혁명의 송풍기가 되며 당원들이 투쟁의 불씨, 선봉투사가 되며 청년들이 강성대국건설의 주역이 되어 폭풍전진할 때 온 나라에 영웅적기상이 차넘치게 될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영웅적으로 투쟁하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자.

푸른 꿈 키워준 그 손길 없다면 내 마음 날개없는 새와 같으리 갈살나무가 무너져 버리면 나는 희망 꽃피웠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즐겨부르는 노래 《축복받은 나의 삶》의 구절구절마다에는 자기들에게 갚은 삶을 안겨주시고 기적과 위훈을 안겨주시었다.

## 새 차게 라오르는 최첨단과학의 불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과학연구사업을 잘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은 대학의 본신임무의 하나이다.》 지난해 12월 함흥수리대학을 몸소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군들과 교원, 연구자들에게 자기 명예 받들이고 높은 세계를 내다보며 최첨단과학기술을 과감히 벌려나갈수 있는 만능의 보증을 안겨주시었다. 대학에서는 위대한 선군령장이 언젠군 당과로 대방으로 최첨단과학을 힘있게 벌려 강성대국건설과 교육의 질적고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첨단과학연구

를 수없이 이룩하고있다. 대학조직에서는 비상이 높어진 교원, 연구자들의 열의에 맞게 우리 당의 최첨단과학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전투적으로 벌려냈다. 장군님께서선 신시대의 장군님께서는 세 에너지를 한 형태인 지열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지열설비들을 우리 식으로 만들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양의 결정지시라면 그 어떤 어려움 과업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무조건 완결하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는 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자들은 지열설비제작을 자신들이 받아

## 12만그루의 감살나무를 퍼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총속에 신령에서 감살나무를 퍼치기 시작한 때로부터 10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군안의 몇몇안되는 농가에서만 볼수 있었던 감살나무가 오늘날은 당의 크나큰 은총속에 황해북도만이 아니라 많은 혁명사적지들과 인민군부대들, 황해남도, 평안북도에도 뿌리째 내리었다. 그 수는 12만그루에 달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조국산천을 아름다운 과일산으로 전변시키고 인민들에게 철따라 맛있는 과일을 더 많이 공급해주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이 땅에서 활짝 꽃피워나가기야 할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일제적 《감살구》라고 이름지어주신 감살나무를 정원파수로 재배하는에서 신령군이 전국의 본보기가 되며 도안의 모든 곳에 심어 줄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절세의 위인들의 승고한 뜻을 받들고 군의 일군들은 온전적인 감살나무를 빨리 번식시키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군에서는 울혈동농장에 목목분조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 계몽상업대학에서 과수학을 전공하는 교원, 학생들과 지혜를 합쳐 나무모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내게 하였다.

울혈동농장의 일군들은 목목분조에서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잘하였다. 농장에서는 분조원모두를 기술자로 키우면서 그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나가게 하였다. 분조원들은 종자체위와 처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첫째에는 4천여그루, 다음해에는 1만여그루의 감살나무모를 생산하였으며 해마다 그 수를 계속 늘여갔다.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무모생산을 늘여나는데 맞게 그것을 나라의 방방곡곡에 퍼지기 위한 사업을 굳이 잊지 않았다. 군안의 어디서나 정원파수, 가로수가 많이 심고 과수원도 조성하기 위한 전투

본사기자 정영철





#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말씀 관철로 들끓는 북방의 대야금기지

김 책 제 철 련 합 기 업 소 에 서

## 비범한 령도밑에 펼쳐지는 대변혁의 새 력사

대교조의 앞장에서 기세 좋게 내달리고 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전변의 새 력사가 수놓아지고 있다.

생산공정현대화의 열풍속에서 주체철 용광로와 원호식련속조리기, 3호가열로를 비롯한 중요생산공정들의 CNC화가 적극 추진되어 종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최첨단 광경들이 펼쳐지고 중앙의 넓은 길이 열리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어주신 대교조의 불길속에 북방의 대야금기지가 소리 치며 일어선 생산동력들을 과감히 불러 내는 것도 기적적이지만 날이날마다 청춘 기업으로 전변되어 가는 것이야말로 대교조역사의 특기할 자랑한 화목이다.

우리는 지금 새로 일떠선 3호가열로의 우람한 로테이션에 김책의 현대화를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신의 자욱자욱을 가슴뜨겁게 더듬어 보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경제전반을 현대적기술로 개편하지 않고서는 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태양절을 눈부신 로력적 성과로 빛낸 인재를 신고 증진의 동력을 세차게 울리고 있던 북방의 대야금기지에 감격의 파도가 일어 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과 4개월만에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또다시 찾아주신 것이다. 그 시각 그이를 우러르며 김책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뜨거운 것을 삼키고 있었다. 온 나라 방방곡곡 가서야 할 곳도 많았지만 수천리 멀고 험한 길을 헤쳐서 오신 길도 오시오며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장군님.

그런데 김책기업소의 입구도로는 온통 파헤쳐져 여간 험하지 않았다. 도로포장공사가 한창이었던 것이다.

일꾼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불현듯 도로에 모시는 것으로 하여 죄책감을 모태기고 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도로공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며 연간압연장에 새로 일떠선 3호가열로를 찾으시었다.

일꾼들은 종전의 가열로를 흔쾌히 없애 버리고 새로 1년 남짓한 기간에 고온공기와 가스로 마음먹은대로 광관을 생산할 수 있는 CNC화된 가열

로를 새로 건설함에 대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고드리었다.

로의 기술상태와 시험가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설비들을 가동시키도록 하시고 몸소 그 과정을 이속도록 지켜보셨다.

모든 설비들이 조종제에 따라 순조롭게 정확히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드디어 김책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기쁨에 겨운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다음번 현대화목표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만족하는 표정으로 금속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연변부분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에게 감사사를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감사, 사실 그것은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을 위해 불멸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께 인민이 삼가 드려야 할 감사였다.

그 순간 일꾼들의 가슴에는 김책의 현대화와 더불어 못 잊을 추억들이 뜨겁게 되새겨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말씀을 받들고 기업소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졌던 몇해전이었다.

그때로 말하면 김책기업소의 구석구석에 고난의 흔적이 려려져 남아 있던 때였다.

철강재 생산만 제대로 하지 않고 해도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현대화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생각 못 하고 있던 때로 그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산공정들을 대담하게 현대화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참으로 그날의 우리 장군님의 모습은 전하의

나날 승리의 휘발을 내다보시며 전후 복구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모습 그대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현행생산을 밀고 나가면서 준비를 잘하였다가 생산공정을 와닥닥 개진함에 대하여, 선후차를 옮겨 정하고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함에 대하여 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일꾼들의 얼굴에는 희색이 돌고 모두가 신심에 넘쳐 새로운 결의들을 다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꾼들을 둘러보시며 이제는 방향과 목표가 명백하고 동무들도 신심에 있어하니 됐다고 하시며 그들을 뜨겁게 고무격려 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애국적의에 의하여 좋은 날이 아니라 시련의 나날에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포성은 이렇게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은 나라에 CNC바람이 불고 최첨단 돌과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던 지난해 3월, 또다시 김책기업소를 찾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변적생산공정을 CNC화하여야 한다고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시었다.

실로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을 위해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신의 세계에는 끝이 없었다.

순간이나 주지않을세라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분도, 탐구의 앞길을 등대처럼 환히 밝혀주는 연구종자를 주시고 지혜의 나래를 달아주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도 이루어진 강력한 과학기술력량이 김책항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김책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감사의 끈적을 울리었다.

정령 김책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기적전변, CNC노래로 흥겨운 일터에 넘치는 창조적 희열, 그 모든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를 나타내는 결코 생각할 수 없다.

하기에 김책의 로동계급은 현대화된 생산공정들과 설비들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사랑의 결정체로 여기고 보양의 열정으로 심장을 끓이며 생산동력들을 증가치게 벌리고 있다.

이제 북방의 철의 기지 김책은 날이 갈수록 더 그 위력을 과시할 것이며 거창한 전변의 갈피갈피에 새겨진 위대한 령도의 자욱자욱을 후세에 길이 전해갈 것이다.

## 현대의 양장에 선 창조의 기술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면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경제를 높이는 수준에서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혁명현대교조의 붐바를 추구하고 종전대로의 앞장에서 움직이지 않게 내달리고 있는 김책의 로동계급은 철강증산장을 위한 생산동력들과 동시에 현대화의 높은 목표를 절망하기 위한 맹렬한 공격전을 벌리고 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주체철용광로의 CNC화를 위한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이미 시공을 끝낸 연간압연공정의 3호가열로가 우리 식의 새로운 방식에 의한 강연가열의 혁신적인 시공을 앞두고 있다.

최첨단의 높은 명마루를 향하여 돌진하는 대교조의 앞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창조강령을 따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깎고 있는 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 련합단위의 과학자들이 서 있다.

주체철용광로의 CNC화는 련합기업소에서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는 현대화대상이었다.

강력한 기술력량과 능력있는 일꾼들로 공사지휘부를 꾸렸지만 그들중 그 누구도 용광로를 CNC화한 경험이 없었다. 용광로의 CNC화를 실현하려면 부득불 생소한 개혁의 길을 걸어야 하였다.

불가능이란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어주신 승리의 화살표따라 오직 공격만을 해야 한다.

이렇게 결심한 강철제련연구소 리광일, 장흥동동무들과 련합기업소 설계실 황상일동무는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도도전해봅시다.》

최첨단기술을 받아들여 주체철용광로를 세상에 내놓으려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 나날에 전해진 가지가지의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여기에 다 적을 수 없다. 방대한 문헌자료, 고심어린 설계작성, 까다로운 설비조립현장...

현장에서 똑같이 들었다가도 새로운 착상이 불현듯 떠올라 자리를 차고 일어나던 그들이었다.

공사지휘부의 일꾼들은 마치도 견고한 적방어진을 일격에 허물 신통한 작전안을 모색하며 겨우 겨우 드는 인민군대지휘관들의 형상같았다고 그때 그들의 모습을 그려보여주었었다.

실로 그것은 물려설 자리도, 되돌아설 권리도 없이 오직 앞으로만 내달려야 하는 총포성 같은 공격전이었다. 그들은 오직 어버이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하나의 열망을 안고 현신의 길을 걸기차게 이어나갔다.

어저 그들만이랴. 주체철 용광로의 현대화공사가 멀쩡히 나신 기업소의 모든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의 귀재는 언제나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국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연간압연공정의 3호가열로 현대화공사장에서도 기술자들의 실력이 높이 발휘되었다. 공정기사의 최정상동무들 비롯한 기업소의 기술자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합심하여 우리 식의 CNC화된 가열로를 일떠세우기 위해 현신의 낮과 밤을 보내었다.

항쟁복도당위원회의 일꾼들은 비롯하여 수많은 단위의 일꾼들이 현대화공사에 발벗고나서서 물심양면의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다.

그들중에는 외국문도서관출판사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있었다. 이들의 사심없는 방조와 지원은 현대화의 끝길이 새겨져 타오르는 찬송가처럼 뜨겁고 빛나고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하기 위해 김책사람들이 자랑하는 창조적 며 잘 못 드는 인민군대지휘관들의 형상같았다고 그때 그들의 모습을 그려보여주었었다.

## 은을 내는 일생산 및 재정총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정상적으로 하면 종업원들이 생산과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할 수 있습니다.》

련합기업소의 각 단위들에서는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여 하여 생산내역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 일으키고 생산의욕을 높여주고 있다.

현실은 행정경제사업의 정치화야말로 생산동력의 위력한 추동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련합기업소의 로동자들은 강철증산장을 위하여 머리를 쓰고 더 많은 땀을 흘릴수록 기업소가 용하고 자기 살림도 늘어남다는 것을 실생활로 체감하고 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제히 그 시범을 창조해주시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비롯한 행정경제사업의 공간들이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북돋아주고 그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는 계기로 되도록 꾸준히 사색하고 실속있는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다.

연간압연장장과 용광로직장을

기업소적인 본보기단위로 선정한 일꾼들은 현실에 발을 붙이고 일생산 및 재정총화에서 비롯된 로동자들의 생산활동정형을 정확히 평가하도록 이끌어주었다.

한편 련합기업소의 초급일꾼들을 위한 강습을 조직하고 실무적인 내용들을 깊이 인식시키었다. 강습에서는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정상적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그들의 정진력을 총발동하여 강철증산장을 위한 생산동력들을 힘있게 벌릴때 대내외적 강조되었으며 궁극적인 모범들이 소개되고 경험들이 교환되었다.

지금 련합기업소의 생산단위들이 그 어디를 가보아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일생산 및 재정총화 공시판들이 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꾼들은 이 사업을 사회주의경쟁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통한것을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추어들고 정상적으로 실시하게 하도록 근로단체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도 융합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각 공장, 작업반에서는 담당장원들을 임명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고 있다.

담당장원들은 기본정수를 물론 보충정수와 삭감정수를

잘 적용하여 로동자들이 실질 일한것만큼 정확한 평가를 받도록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이 과정에 연간압연장에서는 특색있는 일생산 및 재정총화 공시판을 제작운영하게 되었다. 이런 좋은 방법들과 궁극적모범들은 즉시로 기업소의 생산단위들에 일반화되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로력혁신자들에게 대한 정치적평가를 앞세우면서 물질적평가사업도 잘 일반화되고 있다.

위훈자들과 궁극적소행의 주인공들을 혁신자축하모임, 영예사건, 숙보문을 통하여 적극 소개하고 그들에게 경쟁상품도 안겨주고 있다.

이 과정에 혁신자들은 일생산 및 재정총화공시판을 궁지에 넘쳐 바라보며 더 큰 결심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도 각성되어 새로운 일 본색으로 일하게 되었다.

지금 련합기업소의 일꾼들은 행정경제사업의 정치화를 생산장성의 열쇠로 틀어쥐고 당면정해함을 잘하면서 생산자들을 대혁신, 대비약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정치사업의 원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글 및 사진 현저보도반



## 나날이 달라지는 기업소의 면모

련합기업소에서는 지금 도로 포장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기업소의 입구도로와 교양마당을 비롯하여 이미 넓은 편이 번듯하게 포장되어 기업소의 면모가 달라지고 종업원들과 운수기재들이 편리한 도로로 활기있게 오가고 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꾼들은 강철 증산을 위한 생산동력들을 움직여 세차게 벌리는 한편 도로포장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끝낼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 종업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기업소의 각 단위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종전의 도로를 들어 내며 허수양을 정리하기 위한 공사들을 비번씩 나게 하고 있다.

블과 한달 남짓한 사이에 방대한 공사를 끝낸 종업원들은 이어 로판다지에 진입하였다.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맑은 파제를 거머이 기한전에 끝내려는 결의의눈이 낮과 밤을 이어가며 긴장한 전두를 벌리었다.

자동차사업소의 운전사들은 물동운반에 따라 공사속도가 좌우된다는 자각을 안고 책임감을 초과하며 운행을 즐기게 되어 있다.

일정계획대로 공사의 1단계 파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한 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건설적인 구내도로들을 새로 번듯하게 포장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다음단계 도로포장공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책에서 위제길을 이어가던 우리가 판수송사업소에 들렀을 때였다.

기차장은 조용한 기차에 지배된 평정시동무에게 10여년전부터 애용하고 있는 기술혁신착상수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다.

호기심이 동한 우리는 여자를 부리다싶이 하여 그 수첩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펼쳐보니 탐구자의 사색과 고심이 진하게 어긋있는 귀중한 수첩이었다.

100가지가 넘는 착상들이 도면들과 깨달음이 박아온 수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실현된 착상들은 색연필로 표시되어 있었다.

시뮬레이션은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오랜 세월 모지름을 써온 한 일꾼의 고결한 정진세계가 고백되어 있었다.

수첩을 들여다보느라니 련합기업소 설계실에서 진행 중인 단 상

무슨 생각이든 곱씹어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로동자들,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논쟁을 벌리는 기술자들도 무심히 보이지 않았다.

시간을 다듬어 수많은 착상들이 쏟아지고 창의고안명수들이 늘어나는 것은 김책의 그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자랑이었다.

그렇다. 김책로동계급은 누구나 오직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강철증산을 위하여 온 힘을 바치고 있는 것이다.

수첩장은 덮였지만 그 글들은 나에게 이렇게 물고있는 것 같았다.

—그대는 온몸을 기울여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 하나의 수첩을 펼쳐며

## 당대의 뜻을 실천으로 꽃피워가는 어제날 병사

평양은실농장 2중3대혁명붉은기 제3작업반 반장 최용수동무

평양은실농장 제3작업반 반장 최용수동무를 가리켜 사람들은 불가능을 모르는 실천가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온살마다에 계절을 앞당겨 푸르싱싱 자라는 오이와 도마도, 논부터 아득히 펼쳐진 배추로전...

이 모든것이 작업반장 최용수동무의 제대군인다운 기질과 일본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단 삶의 가치는 사회와 협력,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가을 어느날이었다. 평양은실농장에 배낭을 멘 청년이 들어왔다. 북통기에 다부진 몸매, 일꾼들과 종업원들앞에 설 때면 머리뿔을 모아붙이던 하는 습관된 동작, 령장만 있다면 틀림없는 군인이었다.

그가 바로 이 농장에 배치받은 제대군인 최용수동무였다.

농장에서 제일 어려운 곳에 보내달라고 하는 최용수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꾼들은 험기 왕성한 제대군인이 그렇듯이 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최용수동무가 젊은 혈기에 내린 결심이 아니었다.

그날 끝간대 없이 펼쳐진 농장의 온실들을 바라보는 그의 머리속에는 당의 은정속에 성장해온 나날들이 가슴뜨겁게 돌이켜졌다.

7남매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최용수동무는 보람찬 군사부

를 일으켜세웠다. 그리고 그의 은목을 이끌었다.

두 사람은 어버이수령님의 현저말씀과 영애는 장군님의 현저말씀만안에 있었다. 고개를 들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와 영애를 향하여 장군님의 말씀에 자자구구 잃어대기던 최용수동무는 이윽고 초급당비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잠시나마 나약해졌던 절을 하시옵시.》

초급당비서가 그러던 그의 두손을 뜨겁게 잡았다.

《반장동무, 우리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과 영애는 장군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살며 일합시다. 난 동무를 믿습니다.》

초급당비서의 그 말이 최용수동무의 가슴속에 그늘지 않았던 것은 신념의 기둥을 세워주었다. 그는 분발하였다.

어떻게 하면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남새농사를 안전하게 지으면서도 정교한 수출을 높일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온몸을 들이쳐서 온실조건도 다듬고 구 체적으로 따져보았다. 작업반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남새농사를 더 잘 짓는 문제를 두고 토론도 자주 하였다. 그 과정에 좋은 착상을 하게 되었다.

최용수동무는 모든 분조들에 무동력보리를 설치하여 온도를 보장하고 남새를 키운 다음 생육기일을 50일이상 앞당김 남새모를을 기본번적으로 옮겨심는 방법으로 온실에서 겨울철에도 남새농사를 증산하여 지을 것을 결심하였다. 작업반

도도 그의 결심을 지지하며 따라 나갔다.

하지만 험하지 않았다. 실패와 목걸도 많았다.

그런수중 최용수동무는 병사 시절의 담력과 배짱으로 시작한 일을 완강하게 내밀었다. 그는 거머이 작업반체제의 힘으로 여러개의 무동력보리들을 제작하였고 모든 온실들에 모은 대책을 펼쳐서 세월 겨울철에도 남새농사를 띄웠으며 지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정교한 질좋은 거름을 많이 내어 땅을 깊고 깊게 배양하며 같은 양의 농비를 받아들이 한해에 온근 배양농사때와 맞먹는 남새수출을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더 많은 일을 하지만 알아야 한다. 최용수동무는 늘 이런 관점에서 손에 짚을 놓지 않았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에 망라되어 대학을 졸업하였다. 실력은 그대로 실속이 이어졌다. 여러가지 일남새들 사이의 경제배와 열매남새와 일남새들사이의 경제배방법을

비롯하여 그가 창안한 수많은 혁신적인 남새생산자들은 물론 전문가들의 판심을 모았다. 그 나날 그는 여러번 전국 과학기술발표회와 시적인 과학 기술발표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최용수동무의 가슴속에는 남새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될 부식물이라고 하지만 수도시민들에게 언제나 신선한 남새를 먹이 시려고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배추와 감을 일남새는 물론 열매남새생산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언제나 알보다 실천을 앞세우며 병사시절의 이질인, 그 기백으로 작업반을 이끌어가는 최용수동무에게 작업반원들 모두가 그를 우리 작업반장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것이다.

글 및 사진 특보기자 최수복

## 라오스직업련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세문 윤라씨 부위원장 대표단인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직업련맹 만경대교향집을 찾은 대표단

##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모잠비끄수상을 작별 방문

안희정 모잠비끄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4일 아이메스 알리 모잠비끄수상을 작별방문하였다.

작별방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모든 조치들을 적극 지지하며 조선인민이 하루 빨리 강성대국을 건설하기를 바란다.

조선반도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공화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한 김혜성, 박경숙 선수들

## 2011년 아시아컵녀

권투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중국의 해남도에서 진행된 2011년 아시아컵녀 권투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나라 선수들이 11일 귀국하였다.

부상 정인철, 판계부문 일꾼들, 체육인들이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룩한 우리 선수들을 마중하고 축하해 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최용수동무 (왼쪽에서 세번째)

어버이장군님! 은정속에 늘어나는 선군시대의 자랑

어로부터 정방산과 미곡미나라로 유명했던 황해북도에 선군시대에 와서 자랑거리가 부쩍 늘어났다. 그속에 있는 정방산이 자랑거리가 되었다. 정방산은 물론 평양사람들도 그 맛을 잊지 못하는 정방산의 무우절임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다. 이 제품을 생산하는 사리원정방산식품생산협동조합은 여러가지 납세들을 가지고 정방산을 비롯한 부식물들을 생산하는 식료품기업이다.

1956년에 조직된 크지 않은 이 조합에는 정방산과 더불어 전해갈 사연같은 이야기와 연혁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보람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사리원정방산식품생산협동조합의 식료품공장을 처음으로 보아 주신 때는 1970년대초였다. 조합에서 생산한 식료품공장이 편찮다고 치하해주시며 무우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가르쳐 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득 무우절임을 가지고 만든 제품앞에서 절음을 멈추시었다. 인민들속에 잘 알려져 그 제품을 보시며 잠시 생가에 잠겨계시던

황 북 특 산 - 정 방 채

수령님께서 품소 그 제품을 《정방채》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었다. 하여 뜻밖의 영광을 받아안은 그날부터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던 수수한 무우절임은 도처에 소문나게 되었다.

그러하던 정방채의 생산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으로 온 나라가 시련을 겪고있었던것이다.

하지만 그 준엄한 난곡속에 서도 지방의 자그마한 조합에서 생산하던 정방채를 잊지 않고계신분이 있었으니 그분은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장절임은 우리 인민들이 예로부터 많이 만들어먹던 대중식료품이며 된장이나 간장같은 기초식품이라고

은진 경애하는 장군님은 누구보다 해야 할 일이 많은 령도자이시다. 한 나라의 령도자에게 있어서 관심하고 헤아려야 할것은 그 열마인간. 하물며 장절임은 따로 가정주부들도 놓치는 사소한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는 소홀히 스침일이 따로 없으시다. 하시는 일, 관심하시는 모든것이 다 인민을 위한것이기에다.

오늘은 황해북도의 특산물 산물로서, 레일은 세대의 으뜸가는 장절임으로 불리워질 정방채는 말해준다. 어이하어 우리 장군님의 사랑은 그토록 끝이 없고 세심한것인가.

경애하는 그이는 온 나라가정을 보살피는 친어버이이기때문이다. 글 및 사진 번시기자 조환선



커 가 는 기쁨 - 경 흥 관 대 동 장 맥 주 집 에서

얼마전 우리는 풍치수려한 보령강지구에 자리잡고있는 경흥관 대동강맥주집을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모든 인민적 시책들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것이며 인민에 대한 당과 수령의 숭고한 사랑으로부러워나오는것이이다.》

대동강맥주라는 인상은 현관앞에 활짝 열려진 문을 지나면 천정도 벽에도 각종 온풍 난이 부시어 황동하기 이를데 없는 홀이 나간다. 잘 예문 보이기나 할 형상한 알뜰가리는 보석주단, 역시 보이기나라도 장식한 화려한 수리품... 《우리 맥주집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선군시대의 정열을 은정속에 새겨나 사랑의 집입니다.》

우리와 단란 경흥관 대동강맥주집 책임자 김성무동무는 이런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주제 76 (1987)년 9월 7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일떠선 이곳 맥주집을 찾아주시

얼마전 우리는 평양양말 공장에 새로 일떠선 너자양말직장을 찾았다. 기계대에서는 여러가지 너자용긴양말과 모양으로 짧은 양말들이 뚝뚝 뿜어나고있었다. 한쪽에서 착착 쌓인 양말들이 포장되는데 거기에는 《철쭉》이라는 상표이름과 함께 금시라도 향기가 풍길듯 한 진분홍색꽃이 새겨져있었다.

《우리 담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철쭉! 우리 장군님께서 억수로 내리는 비속에 서 몇번이고 앞을 막아서서 수평선에게 최고사령관이 전진길을 알려준 얼얼한 땀을 흘리며 달려오던 너자양말을 손수 늘기어두 보시고 질드름 가세해보시며 《철쭉》이라는 상표이름이 좋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담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철쭉! 우리 장군님께서 억수로 내리는 비속에 서 몇번이고 앞을 막아서서 수평선에게 최고사령관이 전진길을 알려준 얼얼한 땀을 흘리며 달려오던 너자양말을 손수 늘기어두 보시고 질드름 가세해보시며 《철쭉》이라는 상표이름이 좋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새 기술 무역 교류 사례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최신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경제생활에서의 과학적혁신변혁은 다 정복기술과 나노기술, 생물공학의 발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과학자들이 나노기술과 나노재료에 대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최첨단을 돌파하는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국가과학원 레이저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비상한 창조정신으로 나노빛촉매제료를 개발하고 그 응용에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과학기술무역교류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공업의 해인 용해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열정으로 가슴 불태우며 레이저연구소에서 개발한 나노제료를 응용하여 10여가지의 경공업제품들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제품들 가운데는 휴대용 및 가정용 살균용, 초음파살균기와 세수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섬유제품들, 물소독제 등이 있다. 나노기술을 응용한 제품들은 지난해에 진행된 제 25차 중앙과학기술추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품질인증

제7차 전국기계설계부문 과학기술전시회 진행

제7차 전국기계설계부문 과학기술전시회가 5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전국각지의 많은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연구진행하여 내놓은 300여건의 기계설계품, 50여건의 설계연구 및 지원프로그램, 30건의 기계제품형태도안현상모집작품 등이 전시되어 출품되었다.

전시회기간 새로운 기계제품들의 설계와 그 실현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교환되었다. 컴퓨터설계경연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보아주시길 위하여 마련한 열람표, 자동양말포장기, CNC수평라이프스만종합실업장기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한 등과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기계공업의 발전수준을 잘 보여주었다.

새로운 기초식품, 당과류생산설비들과 가정용품들을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여러가지 제품설계와 특색있는 산업미술형태도안들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첨단기술이 도입된 CNC공작기계들과 조종장치설계, 기계설계방법의 과학화, 표준화를 위한 연구논문, 3차원기계설계지원프로그램 등은 열람표, 자동양말포장기, CNC수평라이프스만종합실업장기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한 등과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기계공업의 발전수준을 잘 보여주었다.

새로운 기초식품, 당과류생산설비들과 가정용품들을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여러가지 제품설계와 특색있는 산업미술형태도안들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첨단기술이 도입된 CNC공작기계들과 조종장치설계, 기계설계방법의 과학화, 표준화를 위한 연구논문, 3차원기계설계지원프로그램 등은 열람표, 자동양말포장기, CNC수평라이프스만종합실업장기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한 등과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기계공업의 발전수준을 잘 보여주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리명박역도가 도이원랜드를 행차하면서 우리를 걸고드는 도전적방법을 철회것과 관련하여 11일 조선중앙통신사가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난 8일 리명박역도는 유적방향을 찾 목적지인 도이원랜드에 가서 동포간담회와 기자회견 등을 벌여놓고 우리의 핵이 통일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서 《포기》나 뛰니 하고 위협하는가 하면 합선침몰사건과 연평도사건에 대한 《사파》를 지질어대고 지어 과거 반공화국모략사건까지 거들며 그 무슨 《도발에 대한 응징》을 떠벌였다.

특히 우리 체제를 함부로 시비하면서 주제넘은 사태질을 하였는가 하면 배틀침략이 어쩌저쩌하며 불순한 체제대결방향을 추구하는 열받힌 악당들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우리의 체제와 존엄에 대한 극악한 도발이고 내외여론과 우리의 적극적인 대화노력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물로서는 거기에 치장은 적분을 차아내고있다.

리명박역도가 이번엔 남조선내에서의 반공대결소동도 성취하지 못했기에 해에 나가서까지 못된 방법을 해던것은 날로 높아가는 대화분위기를 차단하고 북남대결과판과 《대북정책》실화에 대한 모함하며 반공화국핵소동과 대결행동을 정당화해보려는 단말마적발악이다.

다 아바와 같이 우리는 그사이 미국과 피뢰보수매당의 반공화국대결과 전쟁행동이 극심한 속에서 평화와 통일의 출로를 열어나가려는 데로부터 북남대화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 기울여왔으며 얼마전에는 최고의 수준에서 북남대화와 관련한 중대제의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역도는 이미 거둬들이 난 모략적이고 도발적인 합선침몰사건과 연평도사건에 대한 《사파》와 《핵포기》 등을 고집하면서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대화와 협상을 가로막고 우리의 선의와 최고준엄에 도전해나섰을뿐 아니라 수급조건들을 번갈아내세워 저들의 이른바 《대북강경정책》이 효과를 거두고있는데서 그 누구의 《핵포기》를 부러워하고 북남대결을 전면제쇄와 대결의 최후단으로 치달아오르게 하고서는 대화의 문이 열려졌다고 하고 《통일》을 떠드는것이야말로 역도의 철면피성을 만천하에 보여주는것이다.

원래 리명박역도와 같은 반공대결분자가 《통일》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것자체가 역경기 그지없으며 민족의 통일원리에 대한 도발이다.

피뢰매당이 얼트모양대로 특대형모략극인 합선침몰사건과 연평도사건에 대한 우리의 《사파》를 북남대화의 문턱으로 설정한것은 결국 대화를 하지 않고 우리와 끝까지 어슬러는 흥성을 드러내었으며 그 누구의 《핵포기》를 대외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있는것을 우리는 무성하게 체시키고 미국과 함께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가소로운 망정이다.

더우기 다른 나라의 통일방식에 현혹되어 그것을 수입해보려고 획책하는것은 하늘이 무너지기를 고대하는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망정이다.

조선반도는 도이원랜드가 아니다.

피뢰매당이 도이원랜드에서와 같은 급변사태를 꿈꾸지만 조선반도에서 4, 19와 같은 급변사태가 일어나 뜻처럼 《정전》이 뒤집힌 몇차례나 된 남조선이다.

원래 리명박역도 역시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반민민적행위로 지금 민심이 폭발적야에 이르러 국도의 위기에 처해있다.

계집안들이 그 모양 되여가고 있고도 감히 그 누구를 넘보면서 망상하고있는것이야말로 얼마나 회귀극적인 추태인가.

미국의 핵전쟁행동의 하수인인 리명박이 남조선을 세계 최대의 핵전쟁초기기지,

판이한 두 세도가 보여주는 진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제는 인민대중이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체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통의 편지를 마구하고 읽는 생각에 잠겨있다. 《저는 평범한 건설자입니다. 며칠전 퇴근중에 울랐던 저는 뜻밖의 인민당에 되었었다. 다함의 인민 당에서 되었었다. 하지만 어떤 동무가 갑자기 심장소크로 의식을 잃게 되었었던것입니다. 무작정 긴급성중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데리고갔으나 저는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여 어떻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평한 걱정이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서 순간은 의뢰집단이 소생된다는 말과 더불어는 아니였습니까. 환자의 인신같은것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까. 한 노동자의 거꺼가는 생명을 위해 최신의료설비들이 동원되고 의사, 간호원들이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을 바라보는 저의 가슴은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고마움으로 뜨겁게 젖어있습니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환관과 관원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

편지의 내용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체제하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평범한 일이였다.

우리의 눈앞에 소생의 기쁨에 넘친 그 평범한 노동자의 모습과 함께 열마인간 이 한 출판물이 전한 남조선의 한 건설자로서의 비참한 운명이 서로 엮여있었다.

...서에서 사는 한 건설노동자가 열이 나는 몸으로 서서 대문구의 한 병원으로 찾아갔다. 그는 응급실에 도착하여 5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한쪽 구석의 침대에 누울수 있었다. 간병수이라는 진단을 받은 그는 며칠후 병을 내서 얼마간 치료비를 구해가지고 또다시 병원에 찾아가었다. 입원속속을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병원으로부터 뜻밖에도 《입원료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무슨 보

신천의 고무신

늘던 신천의 아이들, 아니 온 나라 어린이들의 통성애 칼을 받고 소중할 미소를 펴는 군화발로 깃발이비던 인민백성들을 천백배로 복수해달라고 우렁하게 외치고있는것이다. 그렇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신천의 고무신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우리 세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미세

에 대한 서러발같은 중요와 천백배 복수심을 확약처럼 다져 주고있다.

다시는 주인을 잃지 않아야 신천의 고무신,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신들만을 조여주며 침략자 미제를 지구상에서 영리하게 제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신천의 고무신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우리 세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미세

